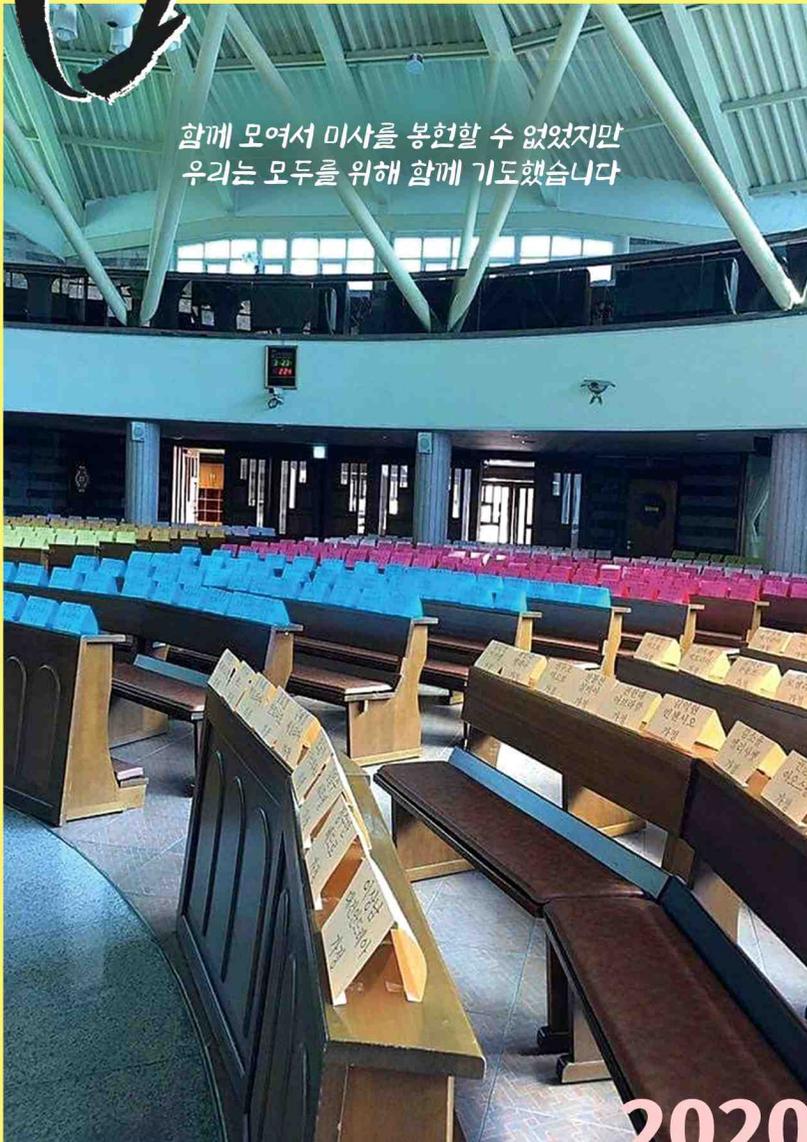


한국틴스타 소식지 통권 제52호

은 사랑*

함께 모여서 미사를 봉헌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모두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 02 광주에서 온 편지
_정영빈 신부
- 03 구미김천에서 온 편지
_이철희 신부
- 05 대구에서 온 편지
_김민수 신부
- 06 울산에서 온 편지
_이주홍 신부
- 08 인천에서 온 편지
_정성일 신부
- 09 의정부에서 온 편지
_하정용 신부
- 10 제주에서 온 편지
_현요안 신부
- 12 포항에서 온 편지
_이성웅 신부
- 13 틴스타 지금 / 후원 안내
- 14 나가는 글
_양주열 신부



2020

04

코로나19 속에서 부활을 맞이하는 틴스타 교사들에게

정영빈 레오 신부
광주 틴스타

찬미 예수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유난히 힘든 사순 시기가 지나가고 마침내
기쁜 날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금도 전 세계가 어둠 속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며 위로와 격려를 하고 어려움에 처한 다른 나라에 있는 이들을 위

해 물품을 보내기 위해 분주해지는 나라 간 소식들은 세상 속에서 빛을 보게 합니다. 국내에서는 성범죄로 떠들썩했습니다. '성'에 대한 가치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고 억압과 돈으로 환산되는 욕구들로 생긴 상처로 국민들에게 또 다른 아픔을 주었습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가 가진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뉴스를 볼 때마다 지금도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 어디에서 생겼는지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희망뿐만 아니라 두려움도 갖게 됩니다. 부활 때에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마음에 담아 봅니다. “공포에 굴복하지 마세요.”

‘사회적 거리 두기’는 몸과 마음 모두를 멀어지게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신앙에서 주님과도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순 시기에 더욱 깊이 살펴보게 됩니다. 이 힘든 시기가 지나면 우리 틴스타 교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것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틴스타 교사의 중요한 역할 그것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몸으로 표현되고 사회적으로 관계 맺어 가도록 살아가는 힘, 마음으로 부터 우러나오는 사랑과 하느님과 일치 이루는 힘은 선물입니다. 특히 이번엔 더욱 두드러지게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를 보면서 인간으로서 존중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처럼 해야 할 사명이라고 여겨 집니다.

'성'은 남자와 여자로 각자가 하느님께 받은 소중한 선물로서 그에 따라 주어진 사명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 '성'만이 문제시되지 않고 한 인간으로 존중받고 관계 맺을 수 있도록 그 가치를 살려 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 시대에 맞게 꾸준히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곧 하느님의 일입니다

이 일을 하는데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가정적인 면에서, 지금도 산적해 있는 일거리에서, 부족한 시간들 또한 자꾸 머뭇거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조금 더 용기를 내고 조금 더 주님께 의탁해 갈 수 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곧 하느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신 독특하고 특별한 선물을 자녀들이 지키고 알아가도록 선물 포장지의 끈을 당기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의미하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 듯이 우리도 그분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 생명을 살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는 나 자신을 알아 가고 나를 만나는 그 사람의 생명과 삶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동안 알던 이들, 지금 알고 있는 이들, 앞으로 만나게 될 이들을 위해 생명과 죽음의 문화 사이에서 남녀 성 정체성을 통해 주님께서 맡겨 주신 소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용기 냅시다.

틴스타 교사들에게

구미·김천에서 온 편지



“평화가 너희와 함께”

(요한 20,19)

이철희 사도요한 신부
구미·김천 틴스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건네십니다. 긴 사순 시기를 보내고 부활을 맞이한 지금, 틴스타 가족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코로나19로 멈춰진 시간은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이 멈추어 버렸고, 또 잃어버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라도 소중함과 감사함을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해 왔던 많은 것을 하지 못해 각자에게 주어진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늘 틴스타 현장의 만남을 위해 준비했던 시간과 학생들을 만났던 일을 하지 못하다 보니 우리에게 주어진 그동안의 틴스타 현장에 다시 한 번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성사와 전례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앙의 자리뿐만 아니라 평신도와 성직자 서로 간의 소중함과 존재에 감사함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끝날 듯 끝날 것 같지 않은 코로나19의 여정을 보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긴 사순 시기를 보내고 부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이 바뀌어 버린 우리의 삶이 부활 팔일 축제 기간을 보내며 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참으로 닮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빈 무덤 앞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아!’라며 이름을 불러 주시므로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뻐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희망을 잃고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걸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 말씀 풀이와 함께 빵을 떼어 나누어 주셨고, 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뜨거움을 간직하게 됩니다. 끝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과거 어부의 삶으로 되돌아간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물을 배 오른 쪽으로 던져라.’는 말씀과 함께 지친 제자들에게 아침을 챙겨 주는 부활하신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나의 이름을 불러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희망을 잃어버린 나에게
당신의 몸을 나누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상의 삶에 지친 나에게
따뜻함과 사랑을 나누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며
나에게 인사를 건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많은 이들은 기뻐하며 다른 이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부활의 기쁨, 곧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며 인사를 건네는 평화의 주님을 전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틴스타 가족 모두가 부활하신 평화의 예수님을 만나 평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조용히 경당에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나아가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도 이 평화가 전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평화가
틴스타 가족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세상 모든 이와 함께!”



코로나19와 부활, 그리고 희망

김민수 레오 신부
대구 틴스타

모든 틴스타 선생님들께 인사드립니다.
“희망을 노래합시다. 알렐루야!”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하였고 이를
통해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죽음 아래 신음하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대구대교구의 교구장이신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님께서 지난 부활 성야 미사 강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세상은 죽
음의 세력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코
로나19뿐만 아니라, 살인, 강도, 강간 같은
흉악한 범죄와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상의
범죄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죽음의 세
력이 아직도 건재하며 위세를 떨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나고
죽음의 세력이 승리한 듯 보이는 절망의 끝
에서 ‘부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의 세력 아래 신음하
고 있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신앙의 핵심

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을 심어 줍니다. 모
든 노력과 공적, 그리고 수고의 땀방울을 한
번에 집어삼키는 ‘죽음’ 앞에서는 많은 것들
이 힘없이 주저앉고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 죽음을 이기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
을 알기에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여기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모
든 지역에서도 틴스타 현장이 열리지 않았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대구는 코로나19의 무서
운 확산으로 현장 개설을 전면 중단한 상황
입니다. 학교도 언제 등교가 정상화 될지 모
르는 상황이고, 만약 등교가 이루어지더라도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받기까지는 많은 시간
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본당도 미사
와 주일학교가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상황입
니다. 이렇다 보니, 틴스타 선생님들께서 아
이들을 만나 활동을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
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또한 모든 것이
멈추어 버린 듯한, 힘을 잃어버린, 절망만이
남아 있는 죽음의 세력 한가운데에 우리 틴
스타가 갇혀 있는 듯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만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
다.

*코로나19로 멈추어버린 활동도
틴스타의 열정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 사순을 잘 지내
왔고 희망 가득한 부활을 맞이하였습니다.
죽음 세력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부활’을 이길 수 없듯이 코로나19로 멈추어 버린 활동은 우리 틴스타의 열정으로 곧 부활할 것입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틴스타

성(性)에 대한 가치가 단순히 쾌락 추구로 전락해 버린 어두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 우리 틴스타의 열정으로 희망의 빛을 찾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들지만 희망을 품고, 그 희망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틴스타가 되면 좋겠습니다.



“알렐루야!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 나셨습니다.”

틴스타 교사들에게

울산에서 온 편지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태 5, 4)

이주홍 디몬테오 신부
울산 틴스타

요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늘어나는 확진자와 사망자들, 그리고 위축된 경제 활동으로 인해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뉴스로 인해 이 사회의 어둠을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공동체 미사 중단에 독백처럼 느껴지는 부활의 노래

교회는 유례없는 공동체 미사 중단을 결정해야 했고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며 성대하게 울려 퍼져야 하는 부활의 기쁜 노래가 외로움 가득한 혼자만의 독백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어둠 속에서 어떤 이들은 죄책감으로 몸부림치고, 어떤 이들은 분노하고, 또 어떤 이들은 무기력한 삶으로 인해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힘겨운 삶이고 걱정과 불안이 가득한 현실이지만 그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하느님 안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구원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며 저는 우리 사회를 조용히 밝히는 빛, 곧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격정과 불안으로 가득한 현실에서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의 순간들

자신만의 이익을 던져 버리고 기꺼이 현장으로 달려가 밤낮없이 진료에 힘쓰는 의료진들의 얼굴에 선명하게 남아 있는 마스크와 고글 자국에 감동합니다. 방역을 위해서 무거운 소독액을 짊어지고 필요한 곳은 어디나 달려가는 봉사자들의 땀을 보며 감동합니다.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분들에게 힘을 실어드리고자 함께 도시락을 배달하던 봉사자들의 노고에 감동합니다. 자가 격리로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도움을 주셨던 은인들의 모습,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이웃을 위해 마스크를 나누는 사랑, 생계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짓돈과 돼지 저금통을 내어놓는 사랑의 몸짓에 감동합니다.

홀로 드리는 미사 중에서도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

이러한 감동의 순간과 마찬가지로 요즘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가족이 함께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 역시 너무나도 사랑스런 순간으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화려한 거리의 네온사인이 아닌 집집마다 환하게 밝혀진 불빛을 바라보며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북적북적하지는 않지만 고요함이 감도는 성전 안에서 성체조배와 십자가의 길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 은총의 순간 속에 함께 머물게 됩니다. 공동체 미사는 할 수 없지만 세상的高통을 함께 짊어지고 매일 미사를 봉헌하는 교황님과 주교님, 신부님들의 모습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교우분들이 그리워 그분들의 사진을 세워 두고 미사를 함께 봉헌하시는 신부님들의 모습 속에서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감동과 사랑의 노력이 고요히 퍼져 나간 부활의 기적

이 모든 감동과 사랑의 노력들이 바로 부활 성야 때 고요히 퍼져 나갔던 빛이고 하느님의 은총이며 세상을 살리는 부활의 기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직도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한 이 순간,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세상 속으로 뛰쳐나갔던 제자들의 삶처럼 자신의 삶으로 작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 세상에 전해지는 기쁜 소식이 틴스타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해요, 틴스타 쌤들!



정성일 세례자요한 신부
인천 틴스타

인천 틴스타 대표 조정옥 선생님이 언젠가 전화로 내게 물었다. “틴스타를 한 마디로 뭐라 정의하시겠어요?” 나는 주저없이 ‘배려와 책임감’이라고 했다. 요즘 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 사건으로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였다. 지금까지의 디지털 성범죄와는 차원이 다른 범죄가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성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하고 마치 노예처럼 길들여 성폭행하고 이를 성착취 영상물로 만들어 공유하고 유포한 반사회적이고 반인권적인 집단 범죄 사건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범죄에 연루된 회원들이 무려 26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틴스타를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배려와 책임감

철학자 데카르트는 말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인간에게 있어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는 데 카르트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동물과 가장 다른 부분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에 모두가 공감하리라 믿는다. 그러나 이번 ‘n번방’ 사건을 접하면서 과연 그들이 ‘생각’이라는 것을 하는 인간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누구나 성에 관심이 있겠지만 우리는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기에 ‘성’을 대함에 있어서 서로가 배려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많은 성범죄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성의식과 무절제한 성윤리 의식의 심각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절제한 성윤리가 만연한 사회에서 건강한 성 정체성을 갖도록 도와야

그런 의미에서 다시금 ‘틴스타’의 중요성을 느끼며, 청소년들에게 신체적·정서적·사회적·이성적·영적인 면에서 성을 이해하고 건강한 성 정체성을 정립하도록 돕는 틴스타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소중한 일상이 중단된 상태에서 틴스타의 모든 활동도 멈추었지만, 조만간 재개될 틴스타 교육에서 이전에 보여 준 선생님들의 열정을 다시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인천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틴스타 선생님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틴스타 쌤들은 이 시대의 진정한 보배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깨달음과 사랑의 실천

하정용 요셉 신부
의정부 틴스타

‘아하’ 체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야 제자들이 깨닫게 된 모습으로서, 그리스도교는 사도들의 ‘아하’ 체험에서 나온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사도들의 ‘아하’ 체험처럼 그리스도인 역시 하느님 체험을 다채롭게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사목 현장에서 만나는 교우들에게서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우들의 하느님 체험에 앞서, 주의깊게 살펴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아하’ 체험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뒤늦은 깨달음이나, 직접 체험하면서 얻는 깨달음, 또는 학습을 통해서도 이러한 깨달음은 이어 집니다.

깨달음은 사랑의 실천 통해 경험 희생은 사랑의 핵심

깨달음은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알아차리게 됩니다. 좋은 결과나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더 나아가야 할 방향의 깨달음’, 부정적인 결과나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해서는 안되는 깨달음’입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가치’를 향해 나아가면서, ‘절제’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깨달음에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절제’를 한다면 무엇을 절제하고 노력하는 것일까요? 이 모습들에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희생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희생’은 사랑의 핵심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 34)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 주신 주님께서는 ‘사랑’이라는 계명을 주셨고, 또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직접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협조자이며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보내시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앞서 교우들의 삶에서 하느님을 체험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사랑의 실천’입니다. 교우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깨달음의 연속이며, 사랑의 실천입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내어놓음의 삶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그 가르침과 구성원의 이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표징과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곧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체험하는 ‘아하’ 체험이 맞다고 표현하는 이정표인 것입니다. 참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제주에서 온 편지



위기는 기회, 연대합시다!

현요안 요한 신부
제주 틴스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부모와 가족들의 슬픔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우리는 여기서도 사랑의 실천을 봅니다. 의료진들의 노력, 많은 이들의 희생, 그리고 기도 등 우리는 사랑으로 초대받고 실천합니다. 깨달음의 연속입니다. 평소 함께하는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깨닫습니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절제’의 모습처럼, 해서는 안되는 모습 또한 분명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과 같이, 교회는 늘 생명과 자연을 훼손하는 죽음의 문화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바이러스의 창궐에 대한 반성 또한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역시 깨달음이며 해서는 안된다는 부분 역시, 사랑의 초대입니다.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표현한다면, ‘거룩한 사랑은 거룩한 질서를 품어 안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먼저 가고 질서가 따라간다”라는 어느 교수 신부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 모습, 더 나아가 영이 온전히 스며들고 이 영을 온전히 따르는 새로운 육신의 모습, 곧 부활의 모습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의 완전한 참여와 실현 중에 계신, 성인들의 통공에서처럼 말이지요.

끝으로 이 성인들의 통공을 이미 살고 있는, 생명을 위한 사랑의 실천을 이루는 틴스타 교사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충만히 내리길 기도드립니다.

가톨릭 신부로서 사제 서품을 받은 지 23년 됩니다. 그동안 보좌 신부 2년과 해외 연수 2년을 빼고는 줄곧 본당 신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갑자기 교구청 가정사목위원회라는 곳으로 발령이 났고, 맡은 직무도 너무도 다양했습니다. 특히 가정사목위원회 산하 ‘틴스타 교육’은 너무도 생소했고, “이건 청소년사목위원회에서 말아야 하는 일 아니야?” 하며 책임 전가의 방어적 자세를 취해 보기도 했습니다. 발령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졌고, 일선 현장에서의 교육이 멈추게 되어, 한숨 돌리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가 틴스타 교육의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는 계기 되어야

제 개인적으로는 책임 상황을 임시 모면하니 다행일지 모르지만, 틴스타 교육의 정체성과 향후 역할 수행의 방법론으로 고민한다면 앞으로가 더욱 치밀하고 다양한 기획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획일적인

방식에서 다양한 접근 방식을 고민하고 시도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제주 교구에서 생태환경위원회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제주 교구는 사목 지침으로 '생태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과 실천을 유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모든 행사가 멈춰 선 상황에서 뒤를 되돌아보니, 개인, 가정, 소공동체, 본당, 교구, 지역이 저마다 생태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고 있지만 모두 따로따로 분리되어 그 영향력이 크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교구 생태환경위원들이 함께 모여 더 근원적인 취지의 바탕과 그 토대 위에 우선 순위적인 기획과 다양한 방법들을 논의했고, 구체적인 사목 계획 수립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틴스타도 행사와 교육은 일시 정지되었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요구되는 생활 보건 환경 속에서 펼쳐질 다양한 교육과 한 방향 비전 흐름 속에 각 지역이 도모할 체계적인 흐름이 연대 되기를 바랍니다. 즉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방법론들이 서로 교류되고 실행되어 안정적인 틴스타 교육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저는 2007년 한국 가톨릭 청년대회 이후로 가톨릭 교회 안에서 10년 이상 꾸준히 문화 사목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성폭력 예방 연극'은 서울 '나는 봄 센터'와 '서울 교육청'의 도움을 받아 서울에 있는 중학교를 방문하여 6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기존의 강의 위주와 소극적인 반응의 형식적인 성교육의 현장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와 언어를 사용하여,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뜨거운 반응과 호응을 이끌어 내며 살아 있는 성교육의 흐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국 교사들의 카리스마와 노하우가 활발히 교류되고 활용되어야

이렇게 전국에 있는 틴스타 교사들이 갖고 있는 저마다의 카리스마와 교육 노하우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 활발히 교류되고, 향후 다양한 흐름의 교육 방법으로 활용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틴스타 가족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연대의 축복을 기원하며 부활 인사를 드립니다.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알렐루야!





다시 힘차게 날갯짓할 날을 희망하며

이성웅 세례자요한 신부
포항틴스타

찬미 예수님!

틴스타 교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틴스타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틴스타로 인해서 분주하게 지냈던 시간들이 생각나네요. 현장에서 학생들과의 활동 그리고 워크숍으로 바쁘게 지냈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도 모두 멈춘 상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워크숍 강의로 중국에 갈 계획이었으나 취소가 되었고 올해

8월,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국제 틴스타 모임도 지금 상황으로는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네요. 이미 비행기표를 구매해 놓았는데, 취소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쁜 일상이 강제로 멈춘 이때가
하느님과 더 가까워질 기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자주 들었던 말이 생각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코로나19가 가장 심각한 대구, 경북에 있으면서 저는 나름대로 시간을 충실하게 활용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틴스타 모임과 현장은 없지만 꾸준히 몸의 신학에 관한 책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다케에 청소년들을 위한 성교육 코너를 맡아서 계속해서 글도 쓰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고 제 생활도 반성하며 피정하는 기분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쁘게 지낼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조용히 지내다 보니 기도하는 시간도 많아져서 하느님과 더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전국에 계신 틴스타 선생님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보람 있고 기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성에 대해서 내가 더 깊게 연구하고 공부할 때 소중한 성의 의미를 더 잘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성이 도구화되는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틴스타

특히 요즘은 ‘박사방’, ‘N번방’ 사건으로 인해서 참된 성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성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아들여지기 보다는 사람들의 목적에 따라 도구화되는 안타까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틴스타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의지하며 그분께서 가르쳐 주는 성의 가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부활하신 주님이 더 강하십니다. 주님께 의지하며 그분께서 가르쳐 주는 소중한 성의 가치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틴스타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다시 힘차게 날갯짓할 우리들의 모습을 희망하며 모두들 파이팅입니다.

한국 틴스타 소식

교재

- 어린이를 위한 틴스타 시범 교육 완료

리플릿 제작

- 혼인을 앞둔 부부 프로그램 리플릿
-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리플릿
-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리플릿

대중 매체 홍보

- "인간 존중을 가르칩니다". 가톨릭 성교육 '틴스타' / 2020.04.01/ cpbc 뉴스
- "여성 성착취물 범죄... 인간 존중 교육 절실하다" / 2020.04.05. / 가톨릭평화신문
- 2020.04.19/cpbc 라디오 <생명은 사랑입니다>
- 2020.05.04./ cpbc TV프로그램 <토크콘서트 For you>
본방 23회 5월 6일 수 09:00
24회 5월 13일 수 09:00
재방 금 13:00, 토 22:40, 일 07:20, 월 17:00

한국 틴스타 후원 안내

한국 틴스타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일궈 나갑니다. 후원을 희망하는 분은 홈페이지에 있는 CMS 신청서를 이용해 주시거나 사무국로 연락바랍니다.

우리은행 1005-100-998647 (예금주:한국 틴스타)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 속에서

양주열 베드로 신부
한국 틴스타

틴스타 교사 여러분!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이 여러분 모두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가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틴스타 역시 예정된 틴스타 교사 양성 워크숍과 심화 및 현장 프로그램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되어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틴스타 활동 역시 재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가장 큰 어려움은 두려움과 단절

틴스타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틴스타 가치에 충실한 교사들의 현장 활동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실시되는 개인 위생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틴스타 활동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아래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질병과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관계의 단절입니다. 두려움은 대상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감염될 수도 있고, 또

자신도 모르게 감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며 고립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노력에는 올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난 보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책임감 있는 공동의 목표 제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의 대응 태도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치료, 감염 예방과 차단을 위해 준비한 절차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고 치료하며, 책임감 있는 담당자가 정확한 정보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있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칙을 지키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 비난하기 보다는 개선하려고 노력하였고, 필요에 따라 절차를 지키며 공동의 선을 지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책임감 있는 이들이 공동의 목표를 제시할 때 국민 모두가 함께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참 좋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디지털 성 착취 사건은 인간의 존엄성이 손상되는 상황

코로나19 상황 안에서 ‘디지털 성 착취 사건’이 사회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의 차원을 넘어서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손상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단순히 재발 방지 차원의 대응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성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이 제기되고 있

습니다. 이에 응답하기 위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틴스타 활동의 재개를 위한 준비와 노력을 해야합니다.

인격적 만남을 통해 단절된 관계를 다시 연결

틴스타 활동의 장점은 인격적인 만남에 있습니다. 틴스타 교사는 참가자가 함께 만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인간의 성과 사랑과 생명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기준을 제시하고 성에 대한 참된 가치를 깨달아 인격적인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틴스타 활동 안에서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단절된 관계를 다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에 “다음 세상이 비록 천국일지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면 이 세상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틴스타 활동이 재개되어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어찌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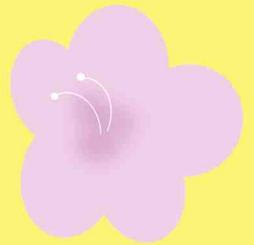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거나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틴스타 활동 재개 위해 철저한 개인 위생과 중단된 활동 참가자의 상태 확인 프로그램과 교안 연구 필요

틴스타 교사 여러분, 코로나19의 감염 사례가 줄고 일상에서 다시 틴스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우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개인 건강을 점검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생식력 자각을 실천하는 것처럼 매일 자기 체온을 측정하고 코로나19 증상이 있는지 체크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감염에 대한 우려나 알지 못하는 감염원이 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단된 활동 그룹이 있다면 미리 연락하여 참가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모임 전에 개인 건강 점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연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프로그램 교재와 교안을 연구하여 틴스타에 참여하는 모든 이가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는 인격적인 존재임을 깊이 인식하고 깨닫는 기회로 삼아 주십시오.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준비하는 만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만남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노력하며 어려움을 견디어 낸 틴스타 교사 여러분께 격려와 지지를 보냅니다.





Teen STAR

발 행 일_ 2020년 4월 (통권 제52호 발행)

창 간 호_ 2004년 10월

발 행 처_ 한국틴스타

편집디자인_ 한국틴스타 홍보편집팀

홈페이지_ www.teenstar.or.kr

주 소_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622호

E-mail_ kteenstar@hanmail.net

전 화 _ 02)727-2358 / 2359

팩 스 _ 02)727-2243

* 표지 그림: 함께 모이지 못하는 교우들의 이름을 장래들에 적어놓고 드리는 미사(부산교구 우동성당)